

산보연 Data Check 7월 4일 추가사항

작성자 : 이은경

1. 업종 중분류별(UP2) YEAR에 따른 SEX의 비율 변화 시각화

: 그래프의 순서는 2018년 기준, 추적 인년 합계 순위(오름차순 정렬)

: **빨간색**이 연도별 **남성** 근로자의 비율, **파란색**이 연도별 **여성** 근로자의 비율 의미

: 상대비율 계산 → y축의 범위가 무조건 0~1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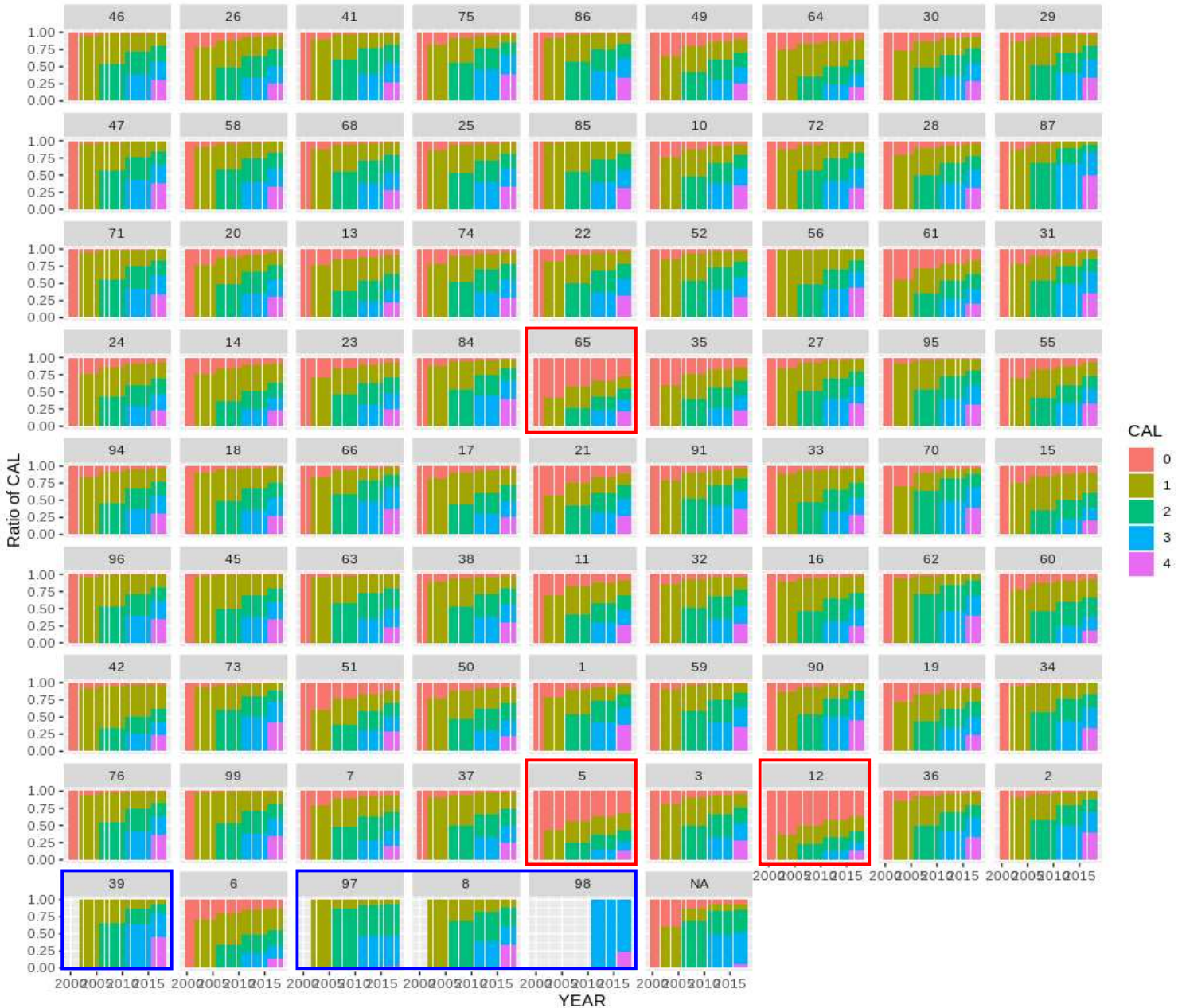
: 대부분 업종은 연도가 변하여도 남성 근로자의 비율이 여성 근로자의 비율보다 더 크다. 그러나,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항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업종이 있다. 이에 대해서 빨간색 테두리를 그렸다. 그리고, UP2가 “98”인 사업장은 특정 연도 이후부터 근로자 수가 집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.

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늘 높은 사업장의 UP2 code	사업장명
86	보건업
85	교육 서비스업
87	사회복지 서비스업
56	음식점, 주점업
96	기타 개인 서비스업
98	가구 내 고용 활동
97	가구 내 고용 활동

2. 업종 중분류별(UP2) YEAR에 따른 CAL(입사 시기)의 비율 변화 시각화

: 그래프의 순서는 2018년 기준, 추적 인년 합계 순위(오름차순 정렬)

: 상대비율 계산 → y축의 범위가 무조건 0~1이다.



: 대부분 업종이 2000년 ~ 2001년에는 CAL=0인, 즉 입사 시기가 1995년 이전인 근로자의 비율이 전부였고, 2002년 ~ 2005년까지는 CAL=1인, 입사 시기가 1996년 ~ 2000년인 근로자의 비율이 대다수이며, 2006년 ~ 2010년까지는 CAL=1인 근로자의 비율이 CAL=2(입사 시기가 01년 ~ 05년)인 근로자의 비율이 우위를 점한다. 2011년 ~ 2015년 사이에는 CAL=3(입사 시기가 06년 ~ 10년)인 근로자들의 비율이 급증하였으며, 2016년 이후에는 CAL=4(11년 ~ 15년)인 근로자들의 비율이 급증하였다. 많은 업종들과 다르게, 눈에 띄는 특징을 가지는 업종들을 빨간색 테두리와 파란색 테두리를 그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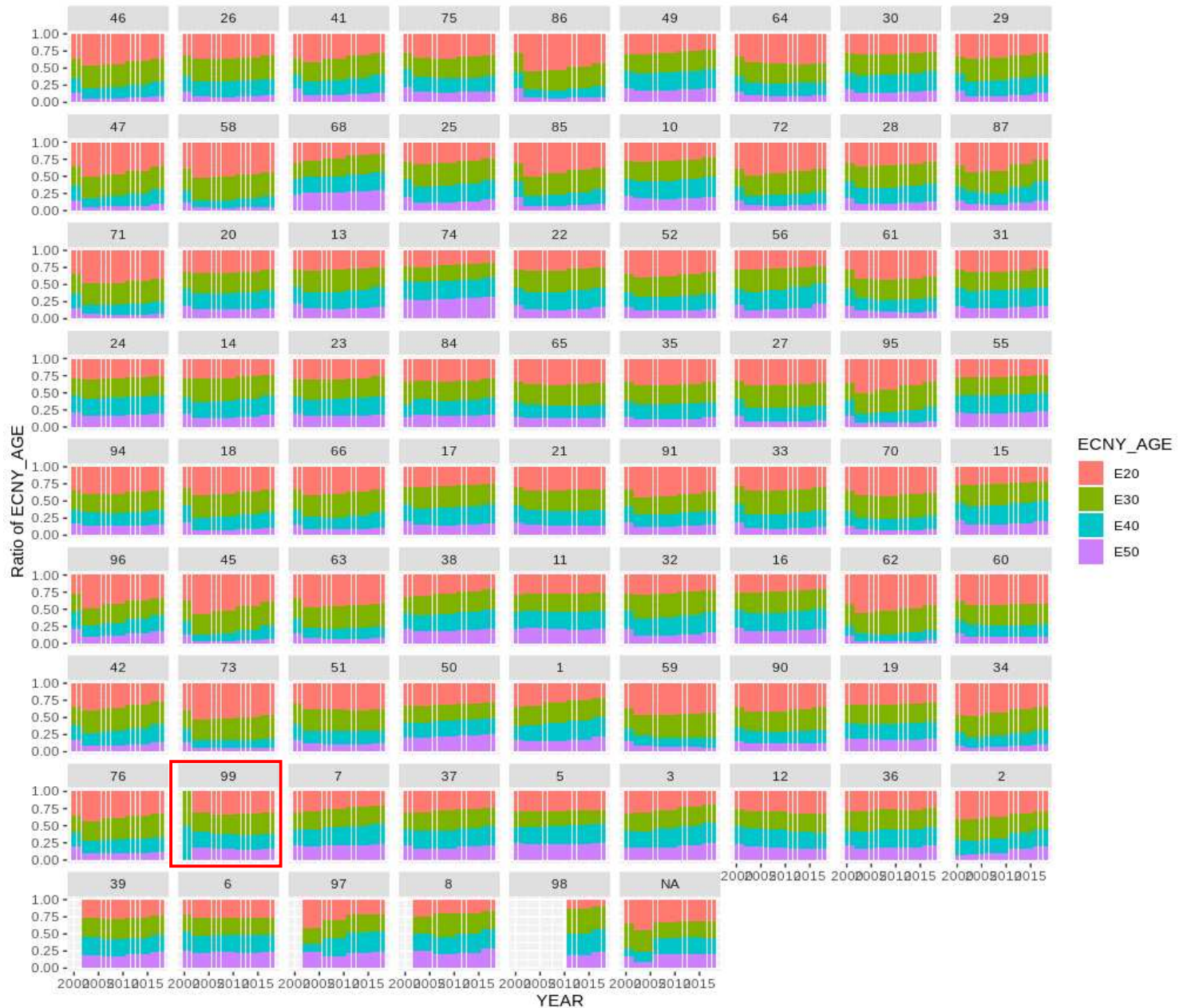
① **빨간색 테두리** : CAL=0인 즉, 입사 시기가 1995년 이전인 근로자의 비율이 연도가 바뀌어도 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업장을 의미한다. 해당 사업장으로는 “65”(보험 및 연금업), “5”(광업 - 석탄, 원유, 채굴업), “12”(제조업 - 담배)가 있다.

② **파란색 테두리** : 특정 시점 이후부터 입사한 근로자만 집계된 업종을 의미한다. 사업장 “39”(환경 정화업), “97”(가구 내 고용 활동), “8”(광업 - 광업, 자원, 원유)들은 CAL=0인 즉, 입사 시기가 1995년 이전인 근로자들은 없으며, 사업장 “98”(가사 생산 활동)은 입사 시기가 2006년 이후부터인 근로자만 집계되었다.

3. 업종 중분류별(UP2) YEAR에 따른 ECNY_AGE(입사 시 연령대)의 비율 변화 시각화

: 그래프의 순서는 2018년 기준, 추적 인년 합계 순위(오름차순 정렬)

: 상대비율 계산 → y축의 범위가 무조건 0~1이다.



: 대부분 업종들이 연도가 변함에 따라 연령대 비율의 차이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. 입사 시 연령대가 20대, 30대인 근로자의 비율이 연도가 변해도 늘 우위를 점하고 있고, 입사 시 연령대가 40대, 50대인 근로자의 비율이 연도가 변해도 큰 값을 가지지 않는다.

빨간색 테두리를 그려놓은 사업장 “99”(국제 및 외국기관)은 2000년 ~ 2001년 기간에는 입사 시 연령대가 20대, 50대인 근로자가 없다.